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어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대하 20:32-33)”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귀와 영광을 얻은 3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부귀와 영광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여호사밧과 함께 해 주셨는데, 여호사밧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였으며,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의 길을 걸어 유다에 있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방백들과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 곳곳에 보내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여호사밧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셔서 유다의 온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쳤으니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던 블레셋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는 많은 짐승 떼를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여호사밧은 날로 강대해 져서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들을 건축하였고 예루살렘에는 용맹스러운 군사를 많이 두었을 뿐 아니라 유다 각 성읍에도 군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사밧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킴으로써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대하 21:6). 이러한 정략 결혼으로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을 함께 공격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만이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예후가 나와 왕을 맞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대하 19:2-3).”

여호사밧이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선한 일을 행하긴 하였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도와 함께 전쟁에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는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여호사밧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라고 예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 여호사밧이 잘못 행한 것이지마는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이러한 책망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브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재판관들을 두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성읍들에 재판관을 두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재판하는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가를 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재판관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조금의 불의 함도 없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여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을 경고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부적으로 정비하고 있을 때 외부적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함께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호사밧은 하나님 찾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번 길르앗 라못에서 있었던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한 아합이 죽는 것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분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감사의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이 암몬과 모압의 군대를 다 치게 하셨고 그들은 패하였습니다. 유다의 군대가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죽어 땅에 엎드려진 시체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과 관련된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분의 뜻을 따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전쟁에 나가 죽음의 위협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아합과 손을 잡았을 때 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아합과 손을 잡았는데 이 순간이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상대주의가 판을 치며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존재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당연히 이러한 가치관들과 부딪치며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친분 관계를 어느 선까지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간혹 전도하려는 목적에서 친분이 있는 불신자 친구와 술자리를 함께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TV를 함께 보며 전도하신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그 배우자 감을 전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선포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 그러한 주장들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러한 주장들이 전도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에는 '과연 그만큼 열매가 있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대부분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신자 한 명을 주님께 이끌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에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지마는 오늘 여호사밧이 행한 것과 같이 그 선을 넘어 갈 때 결과도 얻지 못하고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 불신자의 입 맞을 맞추어 주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